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지원방안

행복한 삶 연구소 소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김 상 미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떠나는 초·중·고등학생이 하루에 170여명 정도이고, 연간 6~7만 여명이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2014년 5월 28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정책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학업중단으로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다(최상근, 2010).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비해 국가차원의 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업복귀 학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원인, 생활실태, 희망하는 욕구 등 실태파악 미흡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제도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중단 동기 또는 의지와 학업중단 이후 생활유형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먼저 학업중단 동기 또는 의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 3가지로 구분되고, 학업중단 이후 생활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정착형(진학형, 취업형, 직업훈련형)과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능동형은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규학교 학업중단형이고, 도피형은 학교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뚜렷한 대안 없이 막연하게 학교를 그만두는 유형이며, 불가피형은 생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진학형은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준비 및 복교하는 청소년, 취업형은 취업이나 대인관계 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직업훈련형은 직업훈련 중에 있거나 훈련과정에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다. 시설수용형은 소년원 직업교육 및 소년원 진학교육 중에 있는 청소년, 방치형은 가출을 동반하거나 가족결손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규철 외, 2009).

〈표 1〉 전국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4	2,784,000	15,908	0.57%	1,804,189	16,278	0.79%	1,893,303	30,382	1.60%
2013	2,951,995	16,828	0.57%	1,849,094	16,426	0.89%	1,920,087	34,934	1.82%
2012	3,132,477	19,163	0.61%	1,910,572	17,811	0.93%	1,943,798	37,391	1.92%
2011	3,299,094	18,836	0.57%	1,974,798	18,866	0.96%	1,962,356	38,887	1.98%
2010	3,474,395	11,634	0.33%	2,006,972	15,736	0.78%	1,965,792	34,540	1.76%

출처: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10~2014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 × 100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 2011년도 조사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교육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기점으로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숫자가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2012년 19,163명(0.61%), 2013년 16,828명(0.57%), 2014년 15,908명(0.58%)이고, 중학생은 2012년 17,811명(0.93%), 2013년 16,426명(0.89%), 2014년 16,278명(0.79%)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은 2012년 37,391명(1.92%), 2013년 34,934명(1.82%), 2014년 30,382명(1.60%)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6만 명 이상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608명, 2014년 605명, 2015년 4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등학생 86명(14.2%), 중학생 132명(21.8%), 고등학생 387명(64.0%)으로 나타났고, 2015년은 초등학생 62명(14.4%), 중학생 125명(28.9%), 고등학생 245명(56.7%)으로 집계되었다.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감소한 결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줄어든 것은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등으로 학업중단학생을 조기 발견해 상담·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015.1.18.).

〈표 2〉 제주특별자치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15('14. 3. 1 ~ '14. 12. 31)	62(14.4)	125(28.9)	245(56.7)	432(100.0)
2014('13. 3. 1 ~ '14. 2. 28.)	86(14.2)	132(21.8)	387(64.0)	605(100.0)
2013('12. 3. 1 ~ '13. 2. 28)	95(15.6)	126(20.7)	387(63.7)	608(100.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계연보(2014), 헤드라인제주 보도자료(2015.1.18.)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수립」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무단결석, 조퇴, 지각 등 근태문제(M=2.66),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좋아서(M=2.49),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M=2.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 입시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학업 중단 사유

구 분	N	M	SD
학습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가 어려워서	151	2.23	.912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51	2.59	.940
학교규칙 및 규정(두발, 복장, 흡연 등)에 적응하지 못해서	151	2.15	.941
교사와의 관계가 나빠서	151	2.17	.907
무단결석, 조퇴, 지각 등 근태문제로	151	2.66	.894
학교폭력(따돌림) 등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서	151	2.07	.899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문제 때문에	151	2.19	.962
부모와의 갈등 혹은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151	2.22	.944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51	2.03	.864
폭력, 절도 등 비행으로 징계를 받아서	151	2.13	.929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좋아서	151	2.49	.979
지적,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51	1.94	.818
신체건강 상의 이유로	151	1.75	.759
검정고시를 하려고	151	2.27	.938
자신의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151	2.23	.934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도움을 받은 기관으로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소(30명, 19.9%), 상담기관(28명, 18.5%)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87명(57.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의 관심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부족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도움 받은 기관

구 분	중학생 (n=16)		고등학생 (n=93)		고교이후 (n=42)		계 (n=15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등)	-	0.0	10	10.8	3	7.1	13	8.6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0.0	2	2.2	4	9.5	6	4.0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0.0	7	7.5	2	4.8	9	6.0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2	12.5	16	17.2	10	23.8	28	18.5
보호관찰소	3	18.8	16	17.2	11	26.2	30	19.9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	0.0	4	4.3	3	7.1	7	4.6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0.0	2	2.2	2	4.8	4	2.6
학원	1	6.3	3	3.2	2	4.8	6	4.0
병원 등 치료시설	-	0.0	2	2.2	1	2.3	3	2.0
대안교육기관	1	6.3	7	7.5	3	7.1	11	7.3
없다	9	56.3	57	61.3	21	50.0	87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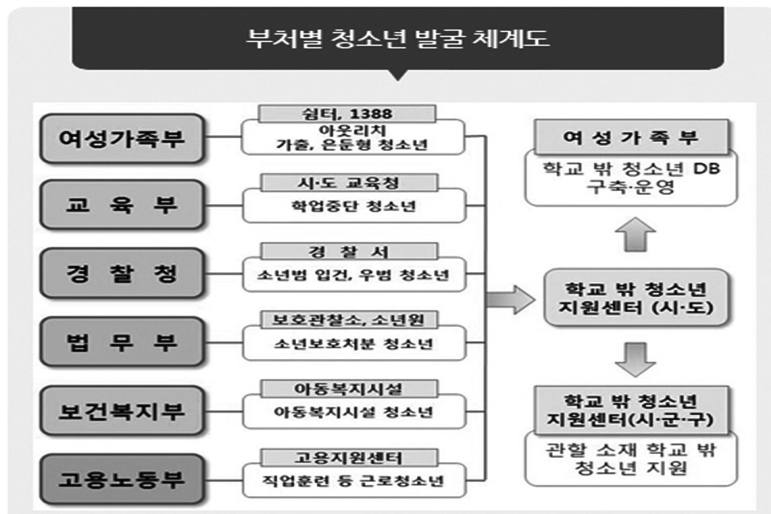
대부분 계획 없이 학교 밖을 나온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으로는 <표 5>에서 보듯이,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49명, 32.5%), 경제적 지원(30명, 19.9%), 진로·진학준비를 위한 지원(29명, 19.2%)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자신을 찾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청소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재미있고 즐기면서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 5〉 학교 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구 분	중학생 (n=16)		고등학생 (n=93)		고교이후 (n=42)		계 (n=15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서적 지원(상담 등)	2	12.5	17	18.3	7	16.7	26	17.2
경제적 지원	6	37.5	17	18.3	7	16.7	30	19.9
나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5	31.3	29	31.2	15	35.7	49	32.5
진로·진학준비를 위한 지원	1	6.3	19	20.4	9	21.4	29	19.2
건강검진 등 건강에 대한 지원	1	6.3	3	3.2	1	2.4	5	3.3
공부 또는 놀 수 있는 환경	-	0.0	2	2.2	-	0.0	2	1.3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음	1	6.3	2	2.2	1	2.4	4	2.6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	0.0	4	4.3	-	0.0	4	2.6
기타	-	0.0	-	0.0	2	4.8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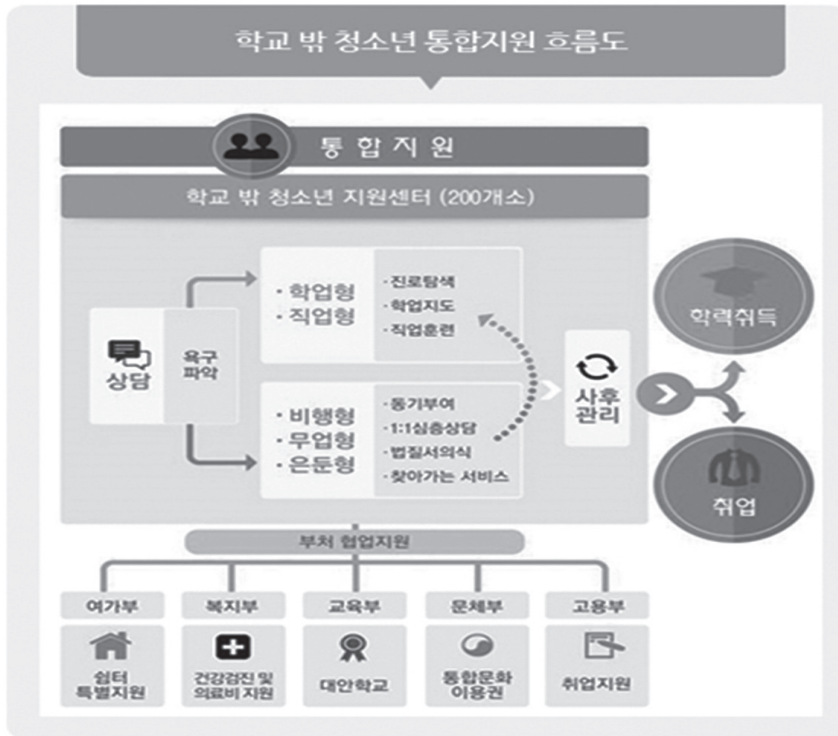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제도

여성가족부는 2016년 올해부터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들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함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1] 부처별 청소년 발굴 체계도

학교를 떠난 이후 사회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연계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2]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흐름도

전국 약 200개 소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와 수시입학 컨설팅 제공을 통해 맞춤형 대학입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직업훈련과정 개발과 인턴십 등을 통한 일자리 연계, 인터넷 중독, 정서장애 청소년의 경우, 정신상담과 심리치료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우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시스템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정책총괄


기능 등 발굴 - 지원 - 점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냄으로써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학교만이 전부라는 사회의 편견을 버리고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III. 결 론

단 한명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청소년은 없다. 2014년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605명(초등 86명, 중등 132명, 고등 387명)으로 집계되었다. 하루에 약 1.7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교육을 떠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움과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체험, 자립, 자원 획득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반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청, 경찰청을 포함한 공공과 민간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연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적응 향상과 학교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기발견 및 자립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1:1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제주도민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틱낫한 스님 말씀 중에 ‘종이 한 장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고 하였다. 종이 한 장을 만들려면 나무를 베는 목수가 먹을 음식, 입을 옷, 잡자리, 톱, 운반차량 등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녹아서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된다고 하였다. 아직 미성숙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모든 기성세대의 진심어린 마음이 녹아나야 할 것이다. 탁상공론식의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수용해야 한다. 어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진정한 청소년

년을 위한 정책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4 교육부 통계연보.
여성가족부(2015). 2014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2016). 2016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201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수립」 연구.
조규철 외(2009).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업중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최상근(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nocutnews.co.kr/issue/plan/list?index=1795&pi=870>
<http://ebpublic.blog.me/220113356964>